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2)*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게재 작품을 중심으로

박 경 수**

차 례

- | | |
|------------------------------|---------------------------------|
| I. 들머리 | III. 조선일보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 |
| II. 동아일보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 | 1. 언론의 혁신과 진보주의 쇠퇴, 그 양면성의 아동문학 |
| 1. 민의의 다양한 소통과 아동문학의 진작 | 2. 영성(零星)한 동시 시단의 자취 |
| 2. 지역 동시인의 등단 무대와 동시 경향의 변화 | 3. 지역 창작 동화의 급격한 쇠퇴 |
| 3. 지역 동화 작가의 개성과 역량 | IV. 마무리 |

I. 들머리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방식이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로 전환되면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한국인 사장의 국어판 민간신문의 발행을 허용하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2-AS1009).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여기에 조선일보가 1920년 3월 5일에 맨 처음 창간을 보게 되고, 이어서 동아일보와 시사신문이 4월 1일 동시에 창간되었다. 이로써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의 어용 기관지인 매일신보만이 유일한 국어판 일간지로 있었던 사정이 크게 변한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 근 10년 가까이 민족의 언론이 거의 막혀 있었던 상황¹⁾이 타개됨으로써 사회비판의 정론과 항일의 논조를 펼치게 되는 민족언론²⁾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일간 신문의 도정은 실로 험난한 과정이었다. 시사신문은 창간된 지 1년이 채 못된 1921년 2월에 사장 민원식(閔元植)이 피살되면서 결국 폐간되고 말았고,³⁾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험난한 역정(歷程)을 조심스럽게 밟아 가야 했다. 그것은 일제의 언론 검열과 탄압이 여전히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세한 자본이 갖는 어려움을 힘들게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신문들은 술한 삭제·압수 등의 탄압을 받으며 수차례의 정간을 당하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역정 속에서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차근차근 사세를 넓혀 가면서 발행지면과 부수를 늘려갔고, 시사신문이 폐간된 공백을 1924년 3월 31일에 창간된 시대일보가 매우면서 동아·조선·시대일보로 묶이는 3대 민족언론지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물론 다른 한편에 친일신문인 매일신보가 한일합방 이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이들 민족언론지와 경쟁하는 가운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존속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신문들은 학술과 문예 방면의 글들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많이 배려했다.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에 일간지 신문들의 주요

1) 1910년 한일합방 이후 국어판 민간언론지로 『경남일보』가 1916년까지 진주에서 발행되었으나, 지방신문으로서 빈약한 자본금, 발행부수와 배포 지역 등의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언론 탄압 등에 의해 민족언론지로서 제 기능을 갖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남일보』(영인본,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의 「해제」 참조.

2) 3대 민간신문이 처음부터 민족언론으로 출발된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의 창간 배후에 친일 경제인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의 자본이 놓여 있었고, 비록 한국인 발행의 신문이지만 친일단체인 국민협회 소속인 민원식(閔元植)을 사장으로 한 시사신문은 처음부터 친일신문으로 출발했다.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224-225쪽.

3)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1990, 412쪽.

독자들이 교육을 받은 젊은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신문의 독자로서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의 직접적인 언론 참가가 가능한 학예면이나 가정면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기성 문인들의 문학 작품들도 많이 발표되었지만, 문학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학작품들도 독자 투고나 현상 공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폭넓게 발표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일제 강점기 일간지 신문들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작가와 독자를 폭넓게 연결하고 있었던 공공의 문학 매체로서 문학작품의 적극적 발표와 수용을 가능하게 한 열린 공간과 장(場)으로서 기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아동문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정에서 일간지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컸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신문의 독자로서만 있게 하지 않고, 그들의 문학작품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모집하여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이렇게 해서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들은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각 신문들마다 동시 시인이나 동화 작가로서 성장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아동문학의 작품 수가 어떤 때는 성인문학의 작품 수를 크게 앞지르기도 하면서 바야흐로 아동문학의 시대를 형성하기도 했다.⁴⁾ 그리고 당시에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이 후에 해당 시인이나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널리 회자되기도 하면서 문학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겨지기도 했다.

이 글은 일제 강점기 아동문학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 중요한 터전이 일간지 신문임을 전제하고, 1931년 이후부터 1940년 폐간 때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발표된 아동문학의 현황과 그 전개과정을 검토한 다음, 이와 연계하

4) 이재철은 『아동문학개론』(개정판), 서문당, 1983, p.54에서 1923년부터 1930년까지를 근대적 아동문학의 형성기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1926년부터 아동문학 전문지인 『아이생활』(1926년 3월 창간)과 『별나라』(1926년 6월 창간)가 간행됨으로써 기존의 『어린이』(1923년 3월 창간), 『신소년』(1923년 10월 창간)에 더하여 아동문학을 크게 진작시켰으며, 일간지 신문의 경우도 1926년 이후 아동문학의 발표가 크게 신장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아동문학의 형성기로 잡은 1923년부터 1930년까지의 시기는 1926년을 전후로 하여 좀더 세분화시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한정된 아동문학의 전개과정을 구획지어 말한다면, 1926년 이후부터 1932년까지 아동문학은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양상 및 주요 작품의 특징적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일간지 신문을 통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 작업으로 1910년 이후부터 1930년까지의 시기에 발행된 시대일보, 중의일보, 매일신보에 소재된 동시 작품들을 면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경남·부산지역 연고 시인들의 작품 활동 상황과 그들의 동시가 갖는 작품세계의 특징을 가능한 대로 밝히고자 했다.⁵⁾ 이 글은 필자의 기존 연구에 이어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1931년 이후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시기에 발행된 일간지를 통해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되, 경남·부산지역 관련 아동문학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1931년 이후 1945년 광복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된 주요 일간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인데, 한 글에서 이들 일간지를 모두 대상으로 아동문학을 논의하기에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따라서 아동문학에 관한 논의의 깊이와 구체성을 가능한 확보하기 위해 논의의 범위를 일정하게 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된 아동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별도의 글에서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그리고 매일신보를 묶어 이들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을 고찰했음을 밝혀둔다.⁶⁾ 그리고 일간지에 발표된 아동문학에 관한 논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일정 시기별로 구획지어서 할 것이며,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 부문과 동화·동극 부문으로 나누어 일간지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일간지 발표 경남·부산지역 관련 아동문학 작품들을 작가 중심으로 모아서 논의하되, 작가별 아동문학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나 지역문학사 또는 문학적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 글의 논의를 통해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서 경남·부산지역 문학은 물론 아동문학 전반에 관한

5)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8, 201-241쪽.

6)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3)」, 『우리문학연구』 제18집, 우리문학회, 2005. 7.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II. 동아일보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

1. 민의의 다양한 소통과 아동문학의 진작

“조선 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는 창간 취지를 밝힌 동아일보는 ‘민의의 표현기관’으로서의 민족언론지적 성격을 분명히 하며 1920년 4월 1일 타블로이드판 4면 발행의 석간신문으로 출발했다. 비록 4면밖에 되지 않는 짧은 지면이었지만, 동아일보는 창간 이후부터 여러 논설과 기사를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논조를 펼치게 되었으며, 이에 일제는 주의·경고 등의 사전 탄압과 삭제·압수·발매 금지 등 사후 언론탄압을 하게 되었다.⁷⁾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1920년 9월 첫 발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래 1930년까지 네 차례의 정간 조치를 받아 전체 11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신문 발행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⁸⁾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서도 내외부의 시련을 극복하고 점차 안정적인 경영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24년 10월 이후 김성수(金性洙) 사장, 홍명희(洪命熙)에 이은 송진우(宋鎭禹) 주필의 체제가 된 후, 먼저 조·석간 6면으로 체제를 바꾼 조선일보와 경쟁하기 위해 동아일보도 1925년 8월부터 조·석간 6면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다 1927년 10월 김성수가 임기 만료로 물러나고 송진우가 사장이 된 이후 1929년 말에 이르러 동아일보는 조·석간 8면 체제로 증면이 되었다. 이처럼 4면에서 6면, 그리고 8면으로 증면

7) 동아일보의 창간 이후부터 1930년까지 판금 및 압수 처분된 건수는 총 325회로 나타난다. 특히 1924년부터 1930년까지 그 이전보다 배 이상 판금 및 압수 건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은 그만큼 사회비판 및 항일의 논조를 담은 글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당시 신문의 판금 및 압수 처분에 관한 상황은 총독부 발행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에 나와 있는데, 이 글은 정진석, 앞의 책, 451쪽에 도표화된 자료를 참고했다.

8) 최준, 『식민통치시대의 언론투쟁』, 『한국신문사논고』, 일조각, 중판, 1995, 334-339쪽 참조.

됨에 따라 학예면에 별도의 ‘시가’란 또는 ‘동아시단’란이 생기는가 하면, 가정면에 ‘어린이 작품’ 또는 ‘어린이 차지’란이 생겨남으로써 성인시는 물론 동시, 동화 등 아동문학 작품의 발표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당시 동아일보는 가장 많은 발행부수⁹⁾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작품의 소통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활발한 문학작품 발표와 수용이 이루어진 문학매체로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31년 이후 폐간 때까지 동아일보의 발행 사정은 1936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1936년 8월에 있었던 이른바 ‘일장기말소 사건’에 따라 동아일보가 무기 정간 처분을 받았다가 1937년 6월 2일 다시 복간되지만, 일제는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기점으로 내선일체의 황민화정책을 점차 가속화시켜 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937년을 경계로 한 언론의 변화는 한국문학의 파행적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대체로 1937년 이후부터라는 상황과 맞물리는 일이다.¹⁰⁾ 따라서 동아일보에 발표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사정은 크게 1931년부터 1936년까지와 1937년부터 1940년 폐간까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1931년부터 1936년까지 동아일보에 게재된 동시의 작품 상황을 시 장르 일반의 작품 발표 상황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당시 시, 시조, 동시 등의 작품 발표 상황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¹¹⁾

-
- 9)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서 1929년부터 조사한 신문 발행부수의 통계를 보면, 동아일보가 1933년까지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정진석, 앞의 책, 552-554쪽에 기술된 것을 참고했다.
- 10) 조연현은 1937년부터 광복까지의 문학을 일제 말기의 문학으로 잡고, 1937년부터 한국문학이 파행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파악한 바 있다. 조연현, 『현대문학사』, 성문각, 1973, 585-586쪽. 필자도 이 점에 동의하고 1937년 이후 한국문단이 친일로 나아가는 사정과 함께 당시의 친일시의 성격을 파악한 바 있다. 박경수, 「일제 말기 친일시의 양상과 의미」, 『한국근대문학의 정신사론』, 삼지원, 1993. 1, 132-162쪽.
- 11) 시 작품의 발표 상황은 동아일보(학예면초) 영인본(오성사, 1986)과 여기서 빠진 작품은 동아일보 홈페이지의 PDF 파일과 색인 검색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작품 발표의 건수 산정은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이 있는 경우는 작은 제목을 기준으로 했으며, 동시의 경우는 어린이 투고 작품도 모두 포함했다. 조선일보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작품 발표 건수를 산정하되, 조선일보 영인본(학예면초)을 기본으로 하면서 조선일보 홈페이지의 색인 작업과 마이크로필름(MF)의

구분 년도	시	시조	동시	기타	소계
1931년	141	130	174	1(창가)	446
1932년	57	20	84	2(창가)	163
1933년	60	35	86		181
1934년	178	7	98		283
1935년	187	5	98		290
1936년	18	2	54		74
소계	641	199	594	3	1437

이상의 표에서 보듯이, 1931년도에 동시를 비롯하여 특별히 많은 시문학 작품들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말부터 조·석간 6면에서 8면으로 증면이 됨에 따라 문예작품의 발표 기회가 더 늘어났던 사정이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점과 함께, 1931년에 들어 학생들의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브나로드’ 운동이 그 배경에 놓여 있었다고도 생각된다. 그것은 ‘브나로드’ 운동의 보다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자사 신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문예작품 발표를 통한 지면 참여는 그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등과의 경쟁이 한층 가열되었던 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1932년부터 1933년까지 발표된 문예작품의 발표 숫자는 1931년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시조 창작의 기운이 크게 꺾여진데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발표하는 동시 작품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 1934년부터 1936년 ‘일장기말소사건’ 이전까지 다시 문예작품의 발표가 증대되는데, 이는 1933년 9월부터 조간 6면, 석간 4면으로 종전보다 조간에서 2면이 증면되면서 문예작품의 발표 기회가 다시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31년부터 1936년까지 발표된 동시 작품수가 594편으로 전체 시문학 작품수의 41.34%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활발한 동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확인을 통해 보완했음을 밝혀 둔다.

동시를 8편 이상 발표한 시인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차남성(車南星, 미상) 38편, 석순봉(石順鳳, 미상) 26편, 목일신(睦一信, 전북 전주) 19편, 윤복진(尹福鎭, 대구), 윤석중(尹石重, 서울) 이상 18편, 이구조(李龜祚, 평양) 17편, 남대우(南大祐, 경남 하동) 15편, 최수복(崔守福, 만주), 홍종달(洪鍾達, 필명 洪月村, 대구) 이상 11편, 김시창(金時昌, =金史良, 평양), 장인균(張仁均, 황해 장연) 이상 10편, 강소천(姜小泉, 함남 고원→함흥), 김규은(金圭銀, 함북 경흥), 박소농(朴素農, 미상), 황순원(黃順元, 평남 대동→평양) 이상 8편.

이상에서 차남성, 석순봉은 1930년대 초 동아일보에 동시를 집중 발표한 시인이지만, 아직 이들의 이력조차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 있다. 목일신, 윤복진, 윤석중, 강소천 등은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 아동문학 활동을 한 이들이면서 동아일보에서 1940년 폐간 때까지 꾸준히 동시, 동화 등을 발표한 시인들이다. 경남·부산지역 출신 아동문학가로는 1930년대부터 등장하여 활동한 하동의 남대우가 1930년대 전반기에 15편의 동시를 올리고 있다.

1937년 이후부터 1940년 폐간 때까지 동아일보에 발표된 동시 작품 상황은 상당히 달라진다. 다음 표를 보자.

구분 년도	시	시조	동시	기타	소계
1937년	24	6	16		46
1938년	63	4	29		96
1939년	140	10	64		214
1940년	111	8	37	1(동화동요)	157
소계	338	28	146	1	513

위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시문학 관련 작품 발표는 그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성인시의 발표는 여전히 편이지만, 시조 작품의 발표가 매월 평균 1편이 못되고, 동시 작품의 발표도 매월 평균 3편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다. 1931년 이후 6년간 매월 평균 8.25편의 동시 작품이 발표된 사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거기다 1937년 이후에 발표된 146편의 동시는 전체 작품수의 28.46%로 그 이전 시기보다 13%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에서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시체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문학작품의 발표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었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성인문학에 비해 정치적 색채가 덜할 수 있는 동시임에도 직접, 간접으로 시대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간에 남정기(南廷驥, 서울), 윤복진(尹福鎭, 대구)이 각 8편, 남대우(南大祐, 하동)가 7편, 강승한(康承翰, 황해 신천)이 4편, 목일신(睦一信, 전북 전주)이 3편으로 동시를 다수 발표한 편에 속한다. 이들 중 남정기와 강승한이 1937년 이후 얼굴을 새로 내민 시인이다.

한편 동화나 동극의 경우는 동시와 좀 다른 사정을 보여준다. 1931년 이후부터 1940년 폐간까지의 시기에 동아일보에 발표된 동화와 동극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1939년	1940년	소계
동화	1	4	6	19	81	18	35	45	57	8	274
동극	1	0	1	2	2	4	1	4	2	1	18
소계	2	4	7	21	83	22	36	49	59	9	292

이상에서 보듯이, 동화와 동극을 포함한 작품의 발표는 해가 갈수록 서서히 많아지다가 1935년에 가서는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아동란이 활성화된 영향이 크지만, 특히 ‘애기네 소설’이라 하여 유아용 짧은 동화가 집중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후 1936년 8월 28일부터 1937년 6월 2일까지 정간이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숫자상으로 동화와 동극의 발표가 약간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939년까지 동화 작품 발표는 ‘아기 소설’, ‘유년동화’, ‘소년소설’ 등의 명칭이 사용되면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1931년 이후 동아일보의 동화, 동극 작품의 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동화, 동극 작가들이 새롭게 문단에 등장하게 되었다. 노양근(盧良根, 경기 개성)은 동아일보 1934년과 1935년 신춘문예에 연이어 가작을 했다가 1936년에는 결국 당선을 거쳐 1940년까지 총 24편의 동화 작품을 발표한 동화 작가이다. 그가 동화 작가로 성장하게 된 산실이 동아일보였던 셈이다. 정순철(丁淳

哲, 미상) 역시 193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꿈지 없는 참새>가 당선¹²⁾된 후 11편의 동화를 발표했고, 현덕(玄德, 서울) 또한 193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고무신>이 가작으로 뽑힌 뒤 여러 편의 동화를 발표했다. 임원호(任元鎬, 서울)도 동아일보의 주요 동화 작가였다. 그는 1935년부터 여러 편의 동화를 발표한 끝에 1936년 신춘문예에 <새빨간 능금>이 가작으로 뽑혔다. 이밖에 동아일보를 동화 발표의 주요 무대로 삼았던 이들이 김규은(金圭銀, 함북 경흥), 이구조(李龜祚, 평양), 김상덕(金相德, 서울), 이정호(李定鎬, 경남 의령), 정우해(丁友海, 미상), 이무영(李無影, 충북 음성), 김은하(金恩河, 미상), 박흥민(朴興珉, 미상), 강소천(姜小泉, 함남 고원→함흥), 최병화(崔秉和, 서울), 홍은표(洪銀杓, 황해 금천), 김응주(金應柱, 미상), 김기팔(金起八, 미상), 윤성호(尹星湖, 미상), 유일천(劉一千, 미상), 한상진(韓相震, 전북 군산) 등이다. 경남·부산 지역 출신 동화 작가로는 앞서 든 이정호가 11편, 이주홍이 5편, 남대우가 2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극 분야에는 이구조와 홍은표가 각각 3편을 발표하여 돋보이는 작품 활동을 했고, 박흥민이 2편, 남석중(南夕鍾, 함남 고산), 김규은, 김광호(金光鎬, 서울), 백양촌(白楊村, 미상), 김상덕, 이훈(李薰, 미상) 등이 각각 1편씩의 작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상에서 동아일보에 동시, 동화, 동극 작품을 발표한 이들 중에 아직도 생몰년도나 이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작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들 작가의 이력과 작품을 찾는 기초적인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아동문학 연구가 작품의 서지작업을 비롯한 작가의 전기 연구 등 밑바닥 작업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지역 동시인의 등단 무대와 동시 경향의 변화

1931년 이후부터 1940년 폐간까지 동아일보에서 경남·부산지역 출신이거나 연고를 가진 이들의 동시 작품 발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크게 1936년 이전

12) <꿈지 없는 참새>가 당선될 당시에는 정순철(丁純鐵)이란 필명을 사용했다. 이후 정순철(丁淳鐵)이란 필명도 썼다.

까지와 그 다음 해부터 1940년까지로 구분하여 파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31년부터 1936년까지 동아일보에 발표된 경남·부산지역 관련 동시 작품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년도	동시	
	경남·부산지역 관련	소계
1931년	김정한(金廷漢, 부산) -〈고기잡이 아버지〉(1. 2) 서덕출(徐德出, 울산) -〈눈 오는 날의 생각〉(1. 18) 정상규(鄭祥奎, 진주) -〈밤나길〉(3. 27)	3편
1932년	공일동(孔日東, 남해) -〈별〉(1. 2) 김대봉(金大鳳, 김해) -〈보리피리〉(2. 27), 〈의사〉, 〈괴도〉, 〈한글〉, 〈대답〉(이상 3. 14)	6편
1933년	탁상수(卓相銖, 통영) -〈보리방아〉(4. 15)/필명 늘샘 남대우(南大祐, 하동) -〈베아 베아〉(10. 1), 〈새 쫓는 노래〉(10. 2), 〈공장누나〉(10. 21), 〈어제서 바보라 하오〉(11. 29), 〈톡탁! 톡탁!〉(12. 1), 〈나무꾼〉(12. 18) 이구월(李久月, 마산→통영) -〈죽은 금붕어〉(10. 23)	8편
1934년	남대우(南大祐, 하동) -〈우리들의 방〉(1. 14), 〈애기야〉(1. 27), 〈떠나간 봉애〉(2. 6), 〈어린이날〉(5. 9), 〈깨골〉(5. 14), 〈참새〉(6. 2) 리정자(부산 초량) -〈봄비!〉(3. 14) 장응두(張應斗, 통영) -〈가랑비〉(5. 3)	8편
1935년	이아(李兒, 마산) -〈눈사람 세배〉(2. 10) 최인욱(崔仁旭, 함천) -〈쥐〉, 〈안개〉(이상 7. 7), 〈아침 해〉(7. 21)/이상 필명 최상천(崔相天) 신맹원(申孟元, 하동) -〈박남〉(8. 18), 〈우리 오빠〉(10. 27), 〈내 시계〉(12. 15) 김석상(金石相, 통영) -〈옛장사〉(9. 1) 박동관(朴東琯, 통영) -〈우리집 닭〉(9. 8) 박동신(朴東信, 통영) -〈먹고 싶어요〉(9. 8) 신구경(남해 가조) -〈고초〉(10. 27) 남대우(南大祐, 하동) -〈단풍뎡〉(12. 15)/필명 남서우(南曙宇)	12편
1936년	최헌주(崔憲珠, 함천) -〈불이야〉(1. 1) 이주홍(李周洪, 함천) -〈뽕〉(3. 1) 남대우(南大祐, 하동) -〈병아리〉(5. 10)/필명: 서우학인(曙宇學人), 〈산길〉(6. 9)/필명: 남산초인(南山樵人) 신맹원(申孟元, 하동) -〈미야미야 오지마라〉(5. 24)	5편
소계	20명	44편

이상에서 보듯이, 1931년부터 1936년까지 동아일보에 발표된 경남·부산지역 출신이나 연고를 가진 이들의 동시 작품은 20명에 44편을 헤아린다. 그러나 전체 작품수와 비교할 때, 동시는 전체의 7.41%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1930년 이전 시기에 비해 경남·부산지역 관련 동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일제에 대한 대항적 인식과 사회비판 의식을 주로 표현했던 경남·부산지역 시인들의 동시 작품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일제의 언론 탄압이 가혹하게 진행되었던 사정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1931년 이후에 발표된 경남·부산지역의 동시 작품들을 먼저 보자. 경남·부산지역의 인물로 1931년에 동시를 발표한 이는 김정한(金廷漢, 부산), 서덕출(徐德出, 울산), 정상규(鄭祥奎, 진주) 셋으로 확인된다.

먼저 김정한은 동래고보를 졸업하고 울산의 대현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있을 때인 1928년 이후부터 조선일보에 그의 시작품들을 발표한 데 이어서 동아일보에는 1929년 말부터 시와 동시를 발표했다. 특히 그의 동시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동아일보에서만 5편을 찾을 수 있는데,¹³⁾ 1931년에 발표된 동시 <고기잡이 아버지>는 이들 중 한 편이다. 그의 동시 작품들은 대체로 순수한 동심을 나타내거나 피상적 계몽주의를 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¹⁴⁾ <고기잡이 아버지>는 순수한 동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전반적으로 시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의식이 소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습작기의 작품들이라 하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이 동시 작품은 잘 다듬어진 형식에 문제의식을 갖춘 작품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13) 이순욱에 의해 김정한의 습작기 시작품 30편이 꼼꼼한 조사 결과 파악되었다. 그리고 그가 김정한의 시일 것으로 보는 ‘김정택(金廷澤)’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시조 <실제(失題)>는 김정택으로 된 다른 시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오식에 의한 것으로 김정한의 작품일 개연성이 높다. 30편 중에 동아일보에 발표된 동시 5편은 <별애기>(30. 10. 23), <한머니와 떡>(30. 11. 1), <제비야 가지 마라>(30. 11. 27), <새들의 회의>(20. 12. 24), 그리고 <고기잡이 아버지>(31. 1. 2)이다. 이순욱, 「습작기 요산 김정한의 시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5, 33-61쪽.

14) 이순욱, 위의 글, 58쪽.

우리우리 아버지진 고기잡이오
한바다에 나도는 고기잡이오
어려사 이력사 그물당기오

낮에는 잠자시고 밤만되며는
물결높은 바다로 후리를가요
어려사 이력사 후리를가요

적막한 바다가의 오막살이는
밤마다 나와엄마 돌이직혀요
어려사 이력사 소리들으며

바람일고 나불신 추운밤이면
어머잠 못자시고 눈물지워요
어려사 이력사 후리소리에

-(1930. 11. 28)-

- 김정환, <고기잡이 아버지> 전문

위의 동시는 가난한 어부의 생활을 제재로 한 작품이다. 작품은 부기된 대로 1930년 11월 28일에 썼으나 발표는 이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이루어진 셈이다. 멸치잡이를 위해 낮밤이 바뀌어 한바다로 떠난 아버지와 밤마다 “적막한 바다가의 오막살이”에 아버지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화자인 나의 입장이 잘 대조되어 있다. 즉 밤의 시간을 배경으로 ‘아버지:어머니와 나’의 시적 대상의 대조, ‘한바다:오막살이’의 시적 공간의 대조, ‘떠남:기다림’의 시적 상황의 대조를 이루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촌 가정의 고달픈 삶이 부각되어 있다. 여기에 각 연의 마지막 행마다 “어려사 이력사”와 같은 <그물 당기는 소리>의 여음을 받쳐 넣음으로써 힘든 노동의 일상을 느끼게 했다.

서덕출은 『어린이』 1925년 4월호에 동시 <봄 편지>가 입선된 이래 꾸준히 동시를 써 왔던 울산 출신의 시인이다. 그는 일간지로는 중외일보와 이에 이어진 중앙일보에 주로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다른 일간지로는 동아일보에서만 그의 동시를 찾을 수 있는데, 해당 작품들이 <봄 편지>(1926. 11. 26)와 이보다 4년을 넘겨서 발표한 동시 <눈 오는 날의 생각>(1931. 1. 18)이다. 작품을 발표하는 일에 일간지에 대한 선호가 어느 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아일보에 모처럼 발표된 서덕출의 동시 <눈 오는 날의 생각>을 보기로 하자. 이

작품은 동요로 불러질 수 있게 박정근(朴禎根)의 곡이 붙어 있다.

오늘도 원종일 눈이옵니다
 쓸쓸히 저무도록 눈이옵니다
 어린여호 외로이 우는산속에
 산소옆 오막집이 울고있겠네

병들어 죽은딸 눈물로묻고
 솔나무 가마기 동무를삼아
 산소만 직히는 늙은이내외
 눈오는 무덤옆에 울고있겠네

-서덕출, <눈 오는 날의 생각> 전문

눈 오는 날 병들어 죽은 딸을 산속에 묻고 슬퍼하는 늙은이 내외의 참담한 사연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다. 왜 딸이 병들어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산소옆 오막집”의 상황 설정에서 병들어도 가난한 살림 때문에 맞이한 비극임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가난으로 산속 움막으로 내몰리고, 딸까지 죽음으로 떠나보낸 늙은 내외의 슬픔과 적막감이 “어린여호(어린 여우)”, “솔나무 가마기(소나무 까마귀)” 등의 대상에 이입되어 한층 고조되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감상성에 빠진 결점을 가진다고 하겠지만,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인 민중 현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 문제의식이 들어 있다.¹⁵⁾

정상규는 진주에서 노동문예운동을 했던 ‘진주새힘사’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¹⁶⁾하면서 동시를 주로 발표하는 한편 이따금 동화를 쓰기도 했다. 작품의 발표는 대체로 1927년 말부터 1931년 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간지의 경우 매일신보를 제외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에 두루 걸쳐 있으며, 아동문학 전문지인 『신소년』, 『별나라』, 『아이생활』 등에서도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¹⁷⁾ 그런데 이중에서도 동아일보는 정상규가 동시를 쓰는 소년

15) 일찍이 이재철은 서덕출 동시의 감상성에 대해 “그의 동요에 나타나는 감상은 그 속에 차라리 눈물겨운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266쪽.

16) 박경수, 앞의 글(『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 218쪽.

17) 정상규의 아동문학 작품으로 동아일보와 중외일보 외에 아동문학 전문지인 『신

문사로 처음 이름을 올리는 매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¹⁸⁾ 1931년도 신춘현상 문예에 동화 <삼봉이의 발꼬락>이 선외가작으로 뽑히기도 해서 그가 동화작가로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¹⁹⁾

1932년에 동시를 발표하고 있는 김대봉(金大鳳)은 김해 출신으로 부산의 동래고보 재학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그는 성인시를 주로 쓰는 초기에 이따금 동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1932년의 동시는 이렇게 발표된 그의 몇 되지 않는 작품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해의 공일동(孔日東)이 발표한 동시 <별>은 동아일보 신년현상문예에서 동요부분 1등 당선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대봉의 <보리피리>와 공일동의 <별>을 보자.

① 보리이삭 도다나면

소년』에서 동화 1편, 『별나라』에서 동시 1편, 『아이생활』에서 동시 4편을 볼 수 있다. 모두 1929년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이에 관해서는 박태일, 『나라없는 시기 아동잡지를 통해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8, 168쪽, 174쪽, 185쪽.

18) 동아일보 1927년 11월 23일에 발표된 <가랑뉘>이 정상규의 첫 작품으로 보인다. 정상규의 소속이 ‘진주배달사’로 나와 있다. 이 뒤에 작품을 발표할 때는 ‘진주새힘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사회주의운동의 영향 아래에서 노동야학을 하면서 문예운동을 한 단체로 보인다.

19) <삼봉이의 발꼬락> 이전에 정상규의 동화 작품으로 『신소년』 1929년 7월호에 발표한 <죽인 고양이>와 조선일보 1930년 1월 24일자에 발표한 <나는 소병정입니다>를 더 찾을 수 있다. 이들 선행 동화의 창작이 바탕이 되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가작 당선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동화 <삼봉이의 발꼬락>이 신문에 직접 게재되지 않아서 어떤 작품인지 알 수 없고, 이후 동아일보에 그의 문학작품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점이 아쉽다.

20) 김대봉의 시로 일간지에서 처음 보이는 작품이 ‘김포백(金抱白)’이란 필명으로 조선일보 1927년 9월 13일자에 발표한 <농부의 노래>이다. 이후 같은 해 <秋夕 달>(9. 15), <벚의 무덤>(10. 20)이 보인다. 발표 당시 소속이 ‘동래고보’로 나와 있다. 김대봉의 시에 관해서는 한정호가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 『경남어문논집』 제7·8합집,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1995에서 먼저 개관한 다음, 다시 그의 동시와 동시론을 중심으로 『김대봉의 동시관과 동시 세계』, 『지역문학연구』 제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에서 고찰했다. 이후 고현철이 『일제 강점기 부산·경남지역 시인 발굴 및 재조명 연구 -김대봉의 재발굴 및 재조명』, 『한국문학논총』 제33집, 한국문학회, 2003에서 기존 김대봉 시작품의 연보를 일부 수정, 보완하면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했다.

종달새 간다지
 썩나는 그날에도
 보리피리 부러주마
 -김대봉, <보리피리> 전문

② 껌을껌을 별들이
 줄고있는데
 빵싹빵싹 꽃들이
 웃고섰고나
 반짝반짝 꽃밭에
 떨어지거던
 가만가만 기어가
 주어웁시다
 -공일동, <별> 전문

①의 <보리피리>는 단순한 구성의 작품이지만, 보리이삭의 돌아남과 종달새의 떠남, 그리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보리피리의 소리가 봄날의 정겨운 서정을 불러일으킨다. 동시다운 면모를 그런대로 갖춘 작품이다. ②의 <별>은 특히 의태어의 사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홀수행마다 들어있는 “껌을껌을”, “빵싹빵싹”, “반짝반짝”, “가만가만”의 의태어들이 별과 꽃이 서로 화답하듯이 반기는 모습을 묘미 있게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를 지켜보며 자연에 동화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정겹게 와 닿는다. 이런 점이 심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신년현상문에 동요부분에 1등 당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대봉도 동시를 쓰는 데 주력하지 않았고, 공일동의 동시를 더 이상 다른 지면에서 찾을 수 없으니,²¹⁾ 남겨진 동시 작품들이 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말았다.

1933년 동아일보에 동시를 발표한 남대우(南大祐)는 1930년대 이후 많은 동시와 동화 작품을 쓴 하동 출신의 아동문학가이다. 그의 동시와 동화 작품들은 『우리 동무』란 유고집²²⁾을 엮으며 1차 모아졌는데, 이 유고집의 ‘작품발표연대’

21) 공일동의 동시 <별>은 후에 곡이 붙어져 노래로 불려진 바 있다. 이 악보는 중앙일보 1932년 4월 18일자에 실려 있다. 이외 공일동의 동시를 다른 일간지 신문에서 찾지 못했다.

22) 남대우, 『우리동무』, 도서출판 정윤, 1992. 7.

를 보면 1933년부터 본격 동시와 동화를 쓴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1929년부터 동시를 발표한 것으로 파악된다.²³⁾ 그는 1930년대 들어 동아일보에 22편의 동시와 2편의 동화 등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는 그가 동아일보 하동지국을 1931년부터 1940년 신문의 강제 폐간 때까지 경영했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발표된 동시 중에서 1933년의 동시는 그의 유고집에 실려 있지 않은 작품들²⁴⁾로 그의 초기 동시 세계의 특징을 잘 볼 수 있어서 주목된다.

① 다라나 오고오고 짹짹거려도

놀고서 먹는놈젠 한알안준다

아버님 피땀흘려 지은곡식을

한알도 못주겠다 후이후이!

-남대우, <새 쫓는 노래> 2연 중 2연

② 해도아직 뜨지않은 이른새벽에

고동소리 들려오면 우리누나는

땀또들고 다름질로 공장에가죠

해벌없는 공장안에 일하러가죠

-남대우, <공장누나> 2연 중 1연

23) 남대우의 유고집(위의 책)에 있는 ‘작품발표연대’를 보면, 그의 첫 동시가 매일신보 1933년 1월 1일자에 실린 <까가>로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실제 매일신보 1941년 8월 11자로 발표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대우의 유고집은 오류도 많지만, 빠져 있는 작품들도 많다. 1930년 이전 그의 동시로 중외일보에 발표된 <아메리카 인형>(1929. 3. 9), <가는 봄>(1929. 3. 13), <밤에 우는 새>(1929. 3. 31)와 성인시 <西將臺>(1929. 3. 28), <농촌연중행사 명절노래> 10편(1929. 5. 4), <조선일꾼 행진곡>(1929. 5. 20), 그리고 조선일보에 발표된 동시 <우리집 베타작>(1929. 12. 10), <기가 차고>(1930. 2. 15), <갈가마귀>(1930. 2. 16), <굴둑 연귀>(1930. 2. 15), <너름 바람>(1930. 6. 21), <심술구즌 개고리>(1930. 7. 6)와 성인시 <「카췌사」가 춤을 춘다>(1929. 11. 13)을 새로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카췌사」가 춤을 춘다>(필명 南山霞洞人)을 제외하고 모두 남양초(南洋草)란 필명으로 발표된 것으로 유고집 『우리동무』에 고스란히 다 빠져 있다.

24) 남대우 유고집의 ‘작품발표연대’에는 1933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6편의 동시 작품들 중 4편이 빠져 있다. 목록에 빠지지 않은 <새 쫓는 노래>와 <툭탁! 툭탁!>은 『별나라』에 채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료를 폭넓게 조사하여 남대우의 아동문학 작품들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③ 어째서 나보고 바보라하오
 밭갈구 논갈면 모다바보오
 당신들 배속에 들어가는밥
 누구가 지은줄 알고나잇고!

어째서 나보고 바보라하오
 공장에 일하면 모다바보오
 당신들 잘입고 잘쓰는물건
 누구가 맨든줄 알고나잇소!
 남대우, <어째서 바보라 하오> 전문

위 ①의 작품은 그동안 그의 초기 동시의 세계를 “농촌 어린이들의 삶을 노래한 작품”²⁵⁾ 또는 “곤궁한 농촌 삶의 인식과 동심세계”²⁶⁾로 보았던 관점을 잘 보여준다. 부모가 지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 새를 쫓는 아이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니 그렇다. 그런데 ②의 작품은 농촌 아이들만 아니라 공장노동을 하는 누나를 시적 대상으로 설정하여, 힘들게 노동하는 현실을 노래했다. ③은 ①과 ②의 상황이 모두 종합되어 있다. 첫째 연에서 시의 화자는 농사를 짓는 이의 입장에 있고, 둘째 연에서 시의 화자는 공장노동자의 입장에 있다. 그런데 이들 초기 동시를 분명히 관류하는 세계관은 다름 아닌 계급주의적 관점이다. 그것은 ①에서 ‘새’를 “놀고서 먹는놈”이라 하여 일하는 농민과 대립하는 시각에서 보고 있고, ②에서 ‘누이’의 일상을 통해 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을 문제 삼고 있으며, ③에서 청자로 설정된 ‘당신’과 화자인 ‘나’의 생활 모순을 계급적 관점을 통해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남대우의 초기 동시가 일제 강점기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는 계급주의의 관점에서 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동시 작품들이 음수율을 지키는 시 형식의 고착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적 진술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시의 미적 근대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5) 이오덕, 「어린이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노래들」,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12호(1994년 봄호), 1994. 3, 158쪽.

26) 김수복, 「곤궁한 삶의 인식과 새 시대의 감격」, 이재철 편, 『한국현대아동문학작가작품론』, 집문당, 1997, 86쪽.

한편 1933년에는 시조를 주로 쓴 통영의 탁상수(卓相銖)가 ‘늘샘’이란 필명으로 동시 <보리방아>를 발표한 것이 이채롭고, 마산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주로 지냈던 이구월(李久月, 본명 李錫鳳)이 중외일보에 주로 동시를 발표하다 모처럼 1930년 동시 2편에 이어 동시 1편을 올렸다. 그러나 특별히 감쌀 만한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1934년부터 1936년까지 남대우 외에 하동의 신맹원(申孟元)이 4편, 합천의 최인옥(崔仁旭)이 최상천(崔相天)이란 본명으로 3편의 동시를 발표하여 눈길을 끈다. 이중 최인옥은 1936년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동화 <꿀벌 이야기>로 가작 입선하여 등단했다고 하겠는데, 동화를 쓰기 이전에 동시의 습작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²⁷⁾ 그리고 시조를 주로 썼던 장응두(張應斗, 필명 張何步)가 동시 <가랑비>(34. 5. 3)를 발표하고, 이주홍(李周洪)이 오랜만에 동시 1편을 동아일보에 올렸다. 이주홍의 동시 <뽕>(36. 3. 1)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자신의 마지막 동시 작품으로 파악된다.²⁸⁾ 이밖에 부산 초량의 이정자, 통영의 김석상(金石相)과 박동관(朴東瑄)과 박동신(朴東信), 마산의 이아(李兒), 남해의 신구경의 동시는 모두 독자투고에 의한 작품이며, 합천의 최현주(崔憲珠)가 발표한 동시는 1936년 신년현상문에 동요부분 2등 당선작이다. 이들 중 역시 작품을 많이 발표한 신맹원의 동시와 1920년대 후반부터 많은 동시 작품을 쓴 이주홍의 동시가 가장 돋보인다. 두 시인의 작품을 보자.

① 큰중 작은중
집옹우에 박님
머리맞쳐 자고있네
새이조케 자고있네

큰중 작은중
집옹우에 박님
머리덮고 주무시오

27) 최인옥(崔仁旭)의 동시로 1935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3편 외에 1939년 8월 20일자 매일신보에서 <나비> 1편을 더 찾을 수 있다.

28) 이주홍의 동시에 관해서는 필자가 그동안 찾아진 15편의 동시 작품들 외에 14편을 새로 찾아서 논의한 바 있다.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5집, 한국문학회, 2003. 12.

모기와서 묻니다

-신맹원, <박님> 전문

② 뽕 뽕 뽕서방

건너뜰에 흥서방

콩밭엘랑 가지마라

두부찌개 못먹는다

밀밭엘랑 가지마라

밀수제비 못먹는다

왕너드렁 가지밭에

가시열매가 네밥이지

丙子, 二月

-이주홍, <뽕> 전문

신맹원의 동시 ①은 지붕 위에 달린 박들의 모습을 중들이 서로 모여 자고 있는 모습으로 의인화시킨 시각이 참신하고 재미있다. 특히 둘째 연에서 “머리 덮고 주무시오/모기와서 묻니다”라는 언술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학적 표현이다. ②의 이주홍의 동시는 동요로 불리는 <뽕 노래>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뽕의 소리를 의미 있는 사설로 바꾸어 부르는 방식을 활용하되, 쉽게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병행(並行) 구문을 잘 이용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두부찌개’ ‘밀수제비’와 대조시켜 뽕의 먹이를 “왕너드렁 가지밭에/가시열매가 네밥이지”라고 한 표현이 익살스럽게 와 닿는다.

그러면 1937년 이후 경남·부산지역과 관련된 이들의 동시 작품 발표 상황은 어떠했는가. 다음 표를 보자.

구분	동시	
년도	경남·부산지역 관련	소계
1937년	.	0편
1938년	이성홍(李聖洪, 합천) -<줄업 맞는 동무들>(3. 27) 김선영(金善永, 통영) -<나의 조카>(11. 13)/어린이 작품 신맹원(申孟元, 하동) -<서러운 꿈>(11. 20) 이성홍(李聖洪, 합천) -<가을달>(12. 18)	4편
1939년	신맹덕(申孟德, 하동) -<내 동생>(1. 29) 김영우(金永鈺, 하동) -<보실비>(4. 9)/어린이 작품 유용현(劉龍炫, 하동) -<병아리>(6. 18)/어린이 작품	8편

구분 년도	동시	
	경남·부산지역 관련	소계
	남상호(南相昊, 하동) -〈비새〉(9. 24)/어린이 작품 김광훈(金光勳, 부산) -〈단풍잎〉(11. 5)/어린이 작품 남대우(南大祐, 하동) -〈은구슬 금구슬〉(10. 8), <단풍잎〉(11. 5) 한정애(韓貞愛, 진양) -〈도야지 새끼〉(11. 26)/어린이 작품	
1940년	안경원(安景遠, 의령) -〈봄 나비〉(1. 3)/신춘원상문에 동요 가작 남대우(南大祐, 하동) -〈애기 바람〉(2. 11), <비야비야 오나라〉(6. 30), <보리타작〉(7. 7), <물 푸는 아버지〉(7. 28), <우리 엄마〉(8. 4)/이상 필명 남서우(南曙宇) 김대봉(金大鳳, 김해) -〈보리피리〉(6. 16)/재수록(朴泰鉉 곡)	7편
소계	12명	19편

위의 표에서 보듯이, 1937년 이후부터 1940년 폐간 때까지 발표된 경남·부산지역 관련 인물의 동시 작품은 12명에 19편으로 동시 전체의 13.01%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를 꾸준히 써온 시인은 남대우(南大祐), 이성홍(李聖洪), 신맹원(申孟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당시 소학교 학생으로 동시를 발표한 이들이다. 다만 여기서 특기할 점은 하동 출신의 남대우를 비롯하여 신맹원, 신맹덕(申孟德)과 하동공립소학교 학생들의 동시 작품 발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작품들의 발표에 이미 기성 시인으로 대접을 받고 있었고 동아일보 하동지국을 운영했던 남대우나 하동공립소학교의 어느 교사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1940년 신춘문예의 작품 공모에 동요 부문에서 경남 의령²⁹⁾의 안경원(安景遠)이 가작으로 당선된 것도 기록해 둘 만하다.

여기서 역시 여러 모로 눈길을 끄는 작품은 남대우와 이성홍의 작품이다. 남대우의 경우는 그 이전에 썼던 작품들의 경향과 확연히 달라진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합천 출신으로 이주홍의 동생³⁰⁾이기도 한 이성홍의 동시는 『신소년』을 거쳐 1926년과 1927년도에 동아일보에 몇 작품³¹⁾이 보인 뒤에

29) 안경원은 <새벽>이란 시조 작품을 동아일보 1940년 3월 1일자에 발표하면서 소속을 '경남 의령군'으로 나타냈다.

30) 이성홍이 향과 이주홍의 동생이란 점은 박태일이 『나라잃은시기 아동잡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150쪽에 서 밝히고 있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 모처럼 다시 보이는 작품이란 점에서 관심이 간다.

먼저 시 경향의 변화를 보여주는 남대우의 동시를 보자.

① 오늘은 우리집 보리 타작날
햇벌이 켜-켜 날세도 조타
도리깨 손에 쥐고 툭툭툭
콩보리밥 먹어도 기운이난다

아빠와 오빠는 저편에 서고
엄마와 나는 이편에 서고
에-오 소리마쳐 뛰다리면은
보리날이 펼-석 튀어오르네.

-남대우, <보리타작> 부분(1-2연)

② 우리엄마 손은
약손이라나
아픈때 만지면
스스르났고
우리엄마 손은
재주도용해
고까웃 때때웃
잘도만들지

-남대우, <우리 엄마> 일부(1연)

남대우의 동시는 크게 3기로 구분되는데, 제1기는 계급주의적 관점이 바탕이 되어 농촌의 곤궁한 삶을 들추어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제2기는 대체로 1937년 전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³²⁾ 쓴

31) 이성흥의 동시로 1926년도 동아일보에 발표된 작품으로 <고기잡이>, <락엽>, <들이 조와>(이상 10. 28), <편지>(11. 14)가 있으며, 1927년도에 발표된 작품으로 <깨여진 별>(11. 26)이 있다.

32) 이오덕, 앞의 글, 158쪽에서 남대우의 시를 3기로 구분하고, 제 2기의 시를 1941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로 잡아서 “어린 순진한 모습과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수복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제2기의 동시를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명명하여 논의했다. 김수복, 앞의 글, 90쪽. 그런데 남대우의 시를 명확하게 시기 구분을 하여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순수한 동심을 노래한 작품들이 1937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작품들로 순수한 동심으로 본 세계나 현실 순응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의 ① <보리타작>은 가족이 모여 보리타작하는 날의 즐거운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제1기의 동시에서 “앞집에도 툇탁/뒷집에도 툇탁/농사지어 남주구/먹을것없어”(〈툇탁! 툇탁!〉, 동아일보, 1933. 11. 22)라고 하며 가난한 농촌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렸던 사정과 크게 다르다. 세월이 변해도 가난한 농촌 현실은 그대로인데 “콩보리밥 먹어도 기운이난다”라고 하여 당대의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나타냈다. ②의 <우리 엄마>는 어머니의 멋진 재주와 솜씨를 자랑스럽게 말하며 어머니의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는 아이의 마음을 티 없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역시 “자다가 깨여보니/엄마가업네/이한밤에 어디갔나/날재워노코”(〈엄마〉, 『동화』, 1936년 10월호)³³⁾라고 하며 어머니의 부재를 안타깝게 노래했던 작품과 먼 거리에 있다. 일제 강점기의 상황이 현실 비판이나 대항적 태도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남대우가 선택한 동시의 세계는 이처럼 현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담아내거나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밝게 그려내는 쪽에 있었다.

다음으로 이성홍의 동시를 살펴보자.

겨울밤 둥근달이 비칠라치면
엄마누난 밤늦게 마조앉아서
또다또다 내설비엄 다듬는대요

둥근달이 높이높이 비친밤이면
이슬맞은 호박꽃만 혼자피고요
귀뚜람인 밤값다고 투덜대지요

-이성홍, <가을달> 일부(1-2연)

위의 이성홍의 동시 <가을달>은 제목과 달리 겨울밤의 정경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겨울밤 달빛을 받으며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와 누나의 모습이 한편으로 정겹게 느껴지지만, “이슬맞은 호박꽃만 혼자피고요/귀뚜람이 밤

제2기의 시기를 좀더 넓게 잡아 논의하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33) 이 작품의 인용은 남대우 유고집 『우리동무』(앞의 책), 55쪽에 있는 것으로 했다.

깊다고 투덜대”는 상황의 묘사는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와 같이 방안과 바깥의 상황 대조를 통해 겨울밤이 주는 상반된 느낌을 적절하게 형상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31년 이후 동아일보에는 성인시는 물론이고 많은 동시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대체로 중일전쟁이 있었던 1937년 이전에는 해마다 100편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동시 작품들이 발표될 정도였고, 그 이후에 동시 작품 발표가 크게 위축되어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도 한해 평균 40여 편 작품을 볼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동시 발표는 전체의 10% 이하에 머물러 기대보다 작품수가 적었다. 그렇지만 동아일보는 하동의 남대우가 가장 크게 활약했던 무대였던 한편 부산의 김정환, 김해 출신인 김대봉, 통영 거주 이구월과 그곳 출신인 장응두의 동시 작품들이 귀하게 발표되었고, 새로 신맹원이 청년 동시인으로 얼굴을 내미는 매체이기도 했다. 또한 이주홍의 일제 강점기 마지막 동시 작품인 <뽕>, 이성홍의 일제 강점기 막바지 동시 작품으로 보이는 <가을달>, 장응두의 <가랑비>가 주목되었으며, 별도로 합천의 최현주와 의령의 안경원이 신년현상문에 공모 동요 부문에서 각각 1등과 각각으로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던 점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겠다.

3. 지역 동화 작가의 개성과 역량

1931년 이후 1940년 동아일보의 폐간 때까지 발표된 동화와 동극 작품들과 경남·부산지역 출신이나 연고 문학인의 동화와 동극 작품의 발표 현황을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년도	동화·동극	
	경남·부산지역 관련	소계
1931년 -1933년	.	0편
1934년	남대우(南大祐, 하동) -(동화) <쥐와 고양이>(1. 5-6. 12) 이정호(李定鎬, 의령) -(동화) <눈 어둔 포수>(6. 29-7. 2), <성냥파리 소녀>(7. 3-8), <작난꾼이 귀신>(7. 11-14), <나비와 피꼬리>(7. 16-20)	5편
1935년	이정호(李定鎬, 의령) -(동화) <작은 힘도 합치면>(5. 5), <순희의 설음>(6. 2), <절	7편

구분 년도	동화·동극	소계
	경남·부산지역 관련	
	잘하는 임금님>(6. 23), <봉선화 이야기>(7. 7), <늑대 삼형제>(9. 15), <콩 눈 섭>(10. 6), <흑뿌리 색시>(12. 12)	
1936년	이주홍(李周洪, 합천) -(동화) <꿀(蜜柑)>(3. 1)	1편
1937년	이주홍(李周洪, 합천) -(동화) <알 낫는 할머니>(8. 28-29, 3. 1)	1편
1938년		
1939년	이주홍(李周洪, 합천) -(동화) <멜치>(5. 9-10, 12), <아들 삼형제>(5. 14), <못난 도야지>(7. 14-16) 남대우(南大祐, 하동) -(동화) <손과 발의 자랑>(8.2)	4편
1940년	.	0편
소계	3명	18편

위의 표에서 보듯이, 경남·부산지역 출신 아동문학가 중에 동극을 발표한 이는 없고, 동화 부문에만 3명의 작가 작품 18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작품 편수는 전체 동화 작품 274편의 6.57%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기대보다 낮은 편이다. 이뿐만 아니라 동화 작품이 이정호, 이주홍, 남대우 등 3명에 한정되어 있어서 작품 발표의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작품이 게재된 경우는 아니지만, 1931년 1월 4일자에 정상규(鄭祥奎, 진주)의 동화 <삼봉이의 발꼬락>이 신춘문에 동요 부문에 가작 당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은 지나칠 사항은 아니다.

1930년대 동아일보의 지면에 게재된 위 3명의 동화 작품들은 제각기 개성 있는 동화세계를 보여주는 있는데, 이들 작품들이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정호(李定鎬)는 의령 출신으로 짧은 생애 동안(1906-1938) 아동문학에 헌신하다시피 한 문학인이다. 그는 1925년경부터 동시를 발표하며 아동문학가로 출발했으나,³⁴⁾ 이후 동화의 번역과 창작을 주로 하는 한편 틈틈이 동시를 쓰기도 했다. 여기서 동아일보 1934년과 1935년에 발표한 동화 작품들은 그가 가장

34) 이정호의 초기 동시로 동아일보에 발표된 <넋물>, <가을>, <귀뚜라미>, <봄>(이상 1925. 4. 1), <봄비>(1925. 4. 11), 매일신보에 발표된 <보고 싶은 어머니>(1925. 12. 21), 시대일보에 발표된 <언니야 래일은 언제나 오니?>(1926. 1. 5)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때는 필명을 정호, 이미소(李微笑)로 했다.

왕성하게 작품을 쓸 때의 작품들이다. 그러나 그의 동화 작품들 중에는 창작의 여부를 잘 가려야 하는 작품들이 많다.³⁵⁾ 이들 작품들 중 <작은 힘도 합치면>, <나비와 피꼬리>, 그리고 ‘소녀소설’로 발표한 <순히의 설음>이 창작동화로 분명히 파악된다. <작은 힘도 합치면>과 <나비와 피꼬리>는 모두 우화로 이루어진 동화로 계몽적 교훈성이 강한 작품들이다. 전자는 벌, 딱따구리, 개구리가 꿈 때문에 집과 알을 잃은 참새의 하소연을 듣고 피를 쓰고 힘을 합해 꿈을 쓰러뜨려 죽인다는 짧은 동화이다. 후자도 ‘어린이 차지’란에 실린 동화로 나비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창수’란 병든 아이가 새소리와 나비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피꼬리를 만나 함께 창수의 소원을 들어주어 병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순히의 설음>은 ‘순히’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지 삼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다가, 삼년 후 복간도에서 온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 때문에 슬픔에 빠진다는 것이 줄거리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들이 모두 단순한 구성이다 보니 갈등구조가 빈약한 흠을 지니고 있고, 특히 <순히의 설음>은 사실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짤막한 서사체로 옮겨놓은 정도이다. 동화 작품의 수준이 그동안 동화 번역 등으로 이론 작가의 명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향파 이주홍(李周洪)의 동화 작품들은 설화의 구술 형식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서 해학이 넘치는 문체와 상황의 반전이 주는 재미를 잘 갖추고 있다.³⁶⁾ 특히 <못난 도야지>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주재님께 새를 잡으려다 오히려 주인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게 된다는 돼지의 우화를 재미있게 엮고 있는 작품이며, <알 낫는 할머니>는 욕심 많은 방개 할머니에게 당하기만 했던 영호가 재치를 써서 할머니를 낭패에 빠뜨리고 승리

35) 이정호의 동화 중에는 창작의 여부를 가려야 하는 작품들이 많다. 번역 여부를 밝히지 않고 동화로 발표한 <성냥파리 소녀>, <늑대 삼형제>는 외국소설의 번역에 의한 것이고, <작난꾼이 귀신(鬼神)>, <눈 어둔 포수>, <콩 눈썹>같은 동화도 외국의 전래동화를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36) 이주홍의 동화가 잘 읽혀지는 이유를 손동인이 『이주홍론 -향파 동화의 빛깔』, 『아동문학평론』 제26호, 1983에서 이주홍 동화의 해학과 풍자성, 그리고 스토리 전개와 재미의 관계를 밝힌 바 있고, 박경희가 『이주홍 동화의 재미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에서 인물의 재미, 구성의 재미, 문체의 재미로 나누어 한층 체계적인 고찰을 한 바 있다.

하게 되는 반전을 통해 이야기의 재미를 한층 높인 작품이다. 그리고 <멜치>는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이 많은 어린 멜치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그물에 잡혀 죽게 되는 과정을 멜치의 신기한 세상 구경의 여로를 통해 흥미 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처럼 1930년대 동아일보에 발표된 이주홍의 동화는 서사적 재미와 교훈성을 함께 갖춘 빼어난 작품들이다.

남대우의 동화는 1934년 신춘문예에 당선한 <쥐와 고양이>와 1939년에 발표한 <손과 발의 자랑>을 동아일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작품 발표의 시차가 큰 만큼 동화의 작품 세계가 서로 다른 세계관을 보여준다. 먼저 <쥐와 고양이>는 동화작가로서 남대우의 등단 작품이기도 한데, 부잣집 고방을 지키는 고양이를 쥐들이 채치를 써서 피하고 또 단결하여 물리친다는 이야기이다. 고양이와 쥐들의 대결을 통해 부자를 비호하는 힘센 존재와 가난하고 약한 존재들이 겪는 생활의 모순을 성찰하는 동시에 집단적 투쟁에 의한 승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쥐와 고양이의 우의적인 이야기를 통해 계급 대립과 무산계급의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그의 초기 동시의 시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계급주의적 시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비해 <손과 발의 자랑>은 액자형식의 구성에 의한 꿈 이야기에서 손과 발이 서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서로 힘을 합쳐야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꿈 이야기의 액자구성과 의인체의 서사 구성에 의해 짜임새 있는 작품이 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쥐와 고양이>에서처럼 화합과 단결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은 계급이나 민족의 모순을 극복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손과 발의 화합과 단결이 갖는 의미는 서로 다른 두 주체 세력의 통합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자칫 ‘내선일체’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30년대 동아일보에 게재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가의 동화는 비록 3명의 작품으로 채워졌지만, 이들은 경남·부산지역을 넘어서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물론 이정호의 경우처럼 창작동화의 수준이 외국동화의 번역에 기울인 노력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들도 있었지만, 이주홍의 동화는 풍자와 해학을 동반한 서사적 재

미와 작품 주제의 교훈성을 함께 갖춘 수준 있는 작품이었고, 남대우의 동화도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 한편 작가의 작품세계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었다.

Ⅲ. 조선일보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

1. 언론의 혁신과 진보주의 쇠퇴, 그 양면성의 아동문학

조선일보는 일제 강점기에 가장 먼저 창간된 민간 일간지이다. '신문명 진보의 주의'를 사시(社是)로 1920년 3월 5일 첫 호를 발행한 조선일보는 창간 당시 비록 친일 경제단체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대정실업회의 발기인 조합자금으로 운영되었지만, 언론사 기자들의 비판적 기사가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창간 1개월 23일만인 4월 28일자(제4호) 기사가 압수를 당한 것으로 5개월여가 지난 뒤부터 술한 발매 금지 및 압수 처분을 받으며 민족언론지로 성장해 갔다. 물론 초창기에는 영세한 자본으로 경영이 순탄치 못해 사장과 편집국장 등이 여러 차례 교체되는 일을 겪다가, 1924년 9월 신석우(申錫雨)가 송병준(宋秉駿)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고 사장으로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를 추대하는 한편 편집진도 크게 보강 정비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일보는 '조선민중의 신문'이란 표어를 새로 내걸고 실체에 부합하는 민족언론지로서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편집국장에 민태원(閔泰瑗), 사회부 기자로 김형원(金炯元), 김달진(金達鎭) 등 문학인이 포진되고, 신문의 체제도 석간 4면에서 조석간 6면으로 증면되었다. 부인란의 신설과 학예면이 강화되어 문예 관련 작품과 글이 다수 게재될 수 있었다. 성인 대상의 문학은 물론이고 동시, 동화 등 아동문학도 눈에 띄게 많이 발표되었다.

1924년 말부터 혁신된 조선일보는 점차 사회주의 색채를 띠어 갔다. 이때부터 1927년 3월 이상재가 사망하기까지 사회주의 색채가 가장 강했다. 특히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1925년 5월 11일 이후 일제의 민족언론지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다.³⁷⁾ 물론 이상재에 이어 사장이 된 신석우가 1931년 7월 안재홍

(安在鴻)에게 그 자리를 넘기기까지 사회주의의 색채는 점차 열어져 갔지만, 초기 혁신된 조선일보의 이미지와 그에 대한 평판이 오래도록 유지되었다. 여기에 당시 사회주의 문학의 경향을 추구했던 김창술(金昌述), 김해강(金海剛), 석송(石松) 김형원(金炯元), 파인(巴人) 김동환(金東煥), 신석정(辛夕汀), 송완순(宋完淳) 등이 1925년 이후 1927년까지 시 분야에서 조선일보의 지면을 채우는 중요 시인으로 활동을 했다. 그리고 1927년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문학의 사회성을 추구하는 젊은 청년문학인들이 조선일보에 다투어 작품을 투고하게 되었다.

경남·부산지역에 있던 젊은 문학청년들도 1927년 이후부터 조선일보의 학예면에 대거 시, 동시, 동화 등을 올리기 시작했다. 1927년 한해 동안 경남·부산지역과 연고가 있는 청년문학인의 이름을 들어보자. 부산의 동래고보생이던 김대봉(金大鳳), 조순규(趙純奎, 趙純卍), 정만중(鄭萬鐘), 부산제이고 학생이던 김규직(金圭直), 진주고보 학생이던 소용수(蘇瑑叟), 정태이(鄭太伊), 진주사범 학생이던 함해(咸海), 함양 출신으로 경성제이고보생이던 고정옥(高晶玉), 밀양 농잠학교생이던 박석정(朴石丁)³⁷⁾ 등이 시와 동시 등을 투고한 이들로 나타난다. 1928년 이후부터 1930년까지는 이들 대부분이 계속 시와 동시 등을 발표하는 한편, 1931년에 프롤레타리아동요집 『불별』³⁸⁾을 함께 낸 하동 출신으로 진주에 있던 김병호(金炳昊), 함안 출신의 양우정(梁雨庭), 연양 출신의 신고송(申孤松), 거제의 손풍산(孫楓山), 마산 출신으로 통영에 거주한 이구월(李久月), 충남 논산 출신이지만 진주의 경남사범학교를 나온 엄흥섭(嚴興燮)이 모두 조선일보에 시와 동시를 발표하는 한편 더러는 틈틈이 동화를 발표했다. 이 기간

37) 민족언론지에 대한 탄압이 통계숫자로 보더라도 1924년부터 1927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신문기사의 압수 처분 건수가 1923년까지 연평균 동아일보는 15건, 조선일보는 20건이던 것이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연평균 동아일보는 45건, 조선일보는 52으로 나타난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 탄압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진석, 앞의 책, 451쪽에 있는 <신문 기사 압수처분 건수 일람표>(1920-1939)를 참고했음.

38) 박석정은 당시 박해쇠(朴亥釧)란 필명으로 시 <눈 어둔 이들과>(1927. 12. 11)를 발표했다.

39) 『불별』에 관해서는 박경수,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 -‘프로레타리아동요집’ 『불별』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제7집,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3. 9 참조.

에 진주의 문학청년들이 조선일보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린 것도 특기할 일이다. '진주새힘사'의 정상규(鄭祥奎), 손길상(孫桔湘), 이재표(李在杓), 차우영수(車又永秀), 최신구(崔信九)와 '진주동무회'의 정원규(鄭元奎), 권주희(權周熙), 이순기(李順基), 최재학(崔在鶴), 천이청(千二淸) 등이 진주에서 야학을 통한 무산아동문학운동을 전개하며 조선일보에 대거 작품을 투고했다. 이밖에 진주공보와 진주제일공보생들이 어린이란을 통해 모두 11회나 동시를 투고하고 있는 일도 진주지역의 아동문학이 크게 진작되어 있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마산의 하태용(河泰鏞), 김용호(金容浩),⁴⁰⁾ 양산 출신으로 마산에 거주했던 이원수(李元壽), 경남사범학교생이던 김남조(金南祚), 통영의 늘샘 탁상수(卓相壽), 진주의 정기주(鄭基周), 울산 대현공보 교사로 있던 김정한(金廷漢), 연양 출신으로 훗날 소설가로 성장한 오영수(吳永壽), 부산의 양섭, 동래고보생이던 염주용(廉周用), 의령의 이영희(李泳熙), 울산의 김인원(金仁元) 등도 경남·부산지역의 청년문학인으로 시와 동시를 투고하여 조선일보의 지면을 일구었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전국에서 사회의식을 가진 문학청년들이 문학작품을 발표하는 각축장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경남·부산지역의 문학청년들이 조선일보의 문예면을 주도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1931년 이후부터 크게 변화되었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을 겪은 일제 총독부는 1930년에 들어 신년호 1면에 총독의 연두사와 휘호를 게재하도록 강요한 것에 이어 수시로 일본 내지의 상황 등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신도록 종용했다. 이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일제의 강압적 언론정책을 따르면서도, 농촌계몽운동과 문맹 퇴치를 위한 문자보급운동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런 운동도 1935년 일제의 강제적인 중지령에 따라 중단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1936년 8월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이 이어지면서 민족언론은 크게 위축되었다.⁴¹⁾ 여기에 조선일보는 일장기말소사건을 비켜갔지만 1940년 초부터 자진 폐간을 강요당한 끝에 동아일보와 함께 8월 10일 동시 폐간되고 말았다. 오직 한국어 신문은 총독부 기관지로

40) 김용호는 당시 아명인 김만석(金萬石)으로 시 <눈물>(1928. 3. 21)을 발표했다.

41) 정진석, 앞의 책, 518-524쪽 참조.

서의 매일신보만 남게 되고 민족언론의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1930년 이후 일제 총독부의 강압적인 언론 통제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3대 민족언론지들은 자사 신문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933년 방응모가 경영주가 되면서 동아일보와 상호 비방전을 전개하는⁴²⁾ 한편 종전 조·석간 4면에서 가정, 학예면으로 4면을 증면하여 10면을 발행하는 등으로 사세를 크게 넓혀갔다.⁴³⁾ 그러다 1936년 이후부터는 일장기말소사건의 반사효과가 더해지면서 발행부수가 동아일보를 앞질러 가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의식을 갖춘 문학작품의 발표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정치색을 배제한 아동문학 등 순수 문예작품의 발표는 종전보다 오히려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다 1936년 1월 13일부터 석간 한 면을 ‘소년조선일보’라 하여 별도 지면을 마련하여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발행했다가, 나중에는 부록으로 별도 4면을 발행했다. 이로 말미암아 1936년 이후 동화작품을 중심으로 아동문학 작품의 발표가 크게 늘어났다.

먼저 1931년부터 1940년 폐간 때까지 조선일보에 발표된 동시 부문의 작품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를 보자.

구분 년도	시	시조	동시	기타	소계
1931년	132	15	88	33(창가)	268
1932년	138	5	61	0	204
1933년	131	13	202	0	346
1934년	88	11	51	0	150
1935년	94	8	1	0	103
1936년	72	2	13	0	87
1937년	34	0	65	0	99
1938년	107	7	76	0	190
1939년	133	3	108	0	244
1940년	114	2	67	0	183
소계	1043	66	732	33	1874

42) 정진석, 앞의 책, 525-531쪽 참조.

43) 정진석, 앞의 책, 553쪽에 있는 표 <한국인 경영 신문 발행부수>에 따르면, 1935년 동아일보가 55,924부, 조선일보가 43,118부를 발행했는데, 1936년에는 동아일보가 31,666부로 급감하고, 조선일보가 60,626부로 크게 신장되어 두 신문의 발행부수 순위가 역전되었다.

이상의 표에서 보듯이, 성인시의 경우 일장기말소사건이 있었던 1936년과 이듬해인 1937년에 작품 발표가 현저하게 줄어들기도 했으나, 대체로 큰 변화가 없이 작품 발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시조의 경우는 작품의 발표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시 동아일보나 다른 신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동시의 경우는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작품 발표가 급격히 줄었다가, 부록으로 소년조선일보가 간행된 1937년 이후에 다시 작품 발표가 늘어나는 등 해에 따라 상당한 편차와 기복을 보였다. 그런데도 1931년 이후부터 약 10년간에 발표된 동시 작품수는 전체 시문학 작품수의 39.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아일보의 37.89%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김성도(金聖道, 경북 경산), 원유각(元裕珏, 미상), 김태오(金泰午, 광주), 윤석중(尹石重, 서울), 윤복진(尹福鎭, 대구), 목일신(睦一信, 전북 전주), 고택구(高宅龜, 평양), 고동환(高東煥, 필명 고노암, 평남 순안) 등이 1931년부터 1935년까지 5편 이상의 동시 작품을 발표한 이들로 나타난다. 그리고 1936년 이후에는 주로 독자 투고에 의한 동시 작품들이 상당수 발표되었는데, 윤석중이 꾸준히 동시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원수(李元壽, 양산→마산), 전량봉(全良鳳, 미상), 박영중(朴泳鍾, 경북 월성→대구)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들이 당시 동시 발표를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윤동향(尹童向, 평북 구성, 10편), 이상실(李相實, 함남 사리원, 6편)과 이창일(李昌一, 평남 평원, 5편) 형제, 그리고 이태선(李泰善, 함남 사리원, 5편)이 1936년 이후 조선일보에 5편 이상의 동시를 투고한 어린이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조선일보에 발표된 동화와 동극의 작품 상황을 보자.

	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1939년	1940년	소계
동화	2	6	109	48	26	98	54	58	79	72	552
동극	0	0	3	0	0	3	0	0	0	0	6
소계	2	6	112	48	26	101	54	58	79	72	558

동화와 동극을 포함한 전체 작품 편수는 558편으로 같은 기간 동아일보의 292편보다 상당히 많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경우는 1930년대 중반까지 점차 작품 발표가 늘어가다가 1936년 이후부터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작품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조선일보의 경우는 1933년과 1936년처럼 집중적인 작품 발표가 이루어진 해도 있고, 1931년과 1932년처럼 극히 저조한 작품 발표를 보이는 해도 있다. 그만큼 작품 발표의 상황에 변수가 많았던 셈이다. 여기서 1933년에는 지면 확대에 따라 학예면의 아동문학에 대한 배려가 많아졌기 때문에 동화 작품의 발표도 늘어났으며, 1936년 이후부터 1940년 8월 폐간 때까지 발표된 동화 작품의 수가 늘어났던 까닭은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발행된 ‘소년조선일보’란에 동화 작품이 지속적으로 올려졌기 때문이다.

1931년 이후 동화 부문에서 5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한 작가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최병화(崔秉和, 서울) 58편,⁴⁴⁾ 김상덕(金相德, 서울) 34편, 현덕(玄德, 서울) 29편, 최영해(崔映海, 서울) 24편, 송창일(宋昌一, 평양), 정홍교(丁洪敎, 미상) 각 22편, 임원호(任元鎬, 서울) 20편, 윤석중(尹石重, 서울) 19편, 배용운(裴鏞潤, 미상) 16편, 이영철(李永哲, 경기 개성) 15편, 정우해(정우해, 미상) 11편, 김복진(金福鎭, 서울) 10편, 김기팔(金起八, 미상), 김상수(金湘洙, 미상), 김응주(金應柱, 미상), 박노일(朴魯一, 미상) 각 9편, 정명남(丁明南, 미상) 8편, 배선권(裴先權, 전북 전주), 현재덕(玄在德, 서울) 각 7편, 서유정(徐幼亭, 미상), 조풍연(趙豊衍, 서울), 차빈균(車斌均, 미상), 최익선(崔益善, 서울) 각 6편, 남기훈(南基薰, 미상), 양재웅(梁在應, 미상), 이구조(李龜祚, 평양), 이호영(李湖影, 미상), 임홍은(林鴻恩, 황해 재령), 전영택(田榮澤, 평양) 각 5편.

이상에서 보듯이, 1931년 이후에는 최병화, 김상덕, 현덕, 최영해, 송창일, 정홍교, 임원호, 윤석중이 주도적으로 동화란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어린이』를 통해 1920년대 말부터 동화 작품을 상당수 발표하고, 한때 『별나라』의 편집동인으로 있었던 최병화(崔秉和)는 1933년 10월 이후 ‘학교소설’이라 하여 조선일보에 동화를 집중 발표했다. 김상덕(金相德)은 같은 시기 동아일보에도 상당한 작품을 올리기도 했는데 지면을 가리지 않고 동화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며, 현덕은 1938년과 1939년 사이에 집중 동화를 발표했다. 현덕에 이어서 최현배의 맏아들이기도 한 최영해와 송창일은 1939년과 1940년

44) 최집몽(崔蝶夢)으로 발표한 동화 4편도 최병화의 작품으로 보았다. 최병화는 고집(孤蝶)이란 필명을 썼는데, 집몽(蝶夢) 역시 그의 필명으로 보인다.

에 조선일보의 부록으로 간행된 ‘소년조선일보’에 동화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그리고 윤석중(尹石重)은 1930년대 초에 동아일보를 통해 주로 동시를 발표하다가 1933년에 조선일보에서 연속 기획된 ‘애기동화’란을 통해 짧은 동화 작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한편 상당수의 동시도 발표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동화 작품을 주로 발표한 이들 중에는 경남·부산지역과 분명한 연고를 가진 이는 없는 듯하다. 1930년 이전에는 염근수(廉根壽, 황해 백천), 이정호(李定鎬, 의령), 연성흠(延星欽, 황해 안악), 정상규(鄭祥奎, 진주), 손길상(孫桔湘, 진주), 이재표(李在杓, 진주) 등이 동화를 주로 발표했는데, 이들 중 4인이 경남지역 출신이었던 사정과는 많은 격차가 있다. 그만큼 조선일보의 지면으로부터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가들이 거리를 두게 되었던 셈이다.

한편 동극은 고장환(高長煥, 미상)이 2편, 김상덕(金相德), 김태오(金泰午, 광주), 김호준(金虎俊, 미상), 남기훈(南基薰)이 각 1편씩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경남·부산지역과 연고가 있는 이는 없는 듯이 보인다.

2. 영성(零星)한 동시 시단의 자취

1931년 이후부터 1940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된 조선일보와 별면 또는 부록으로 발행된 ‘소년조선일보’에서 경남·부산지역과 연고가 있는 이의 동시 작품을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년도	동시	
	경남·부산지역 관련	소계
1931년	김인원(金仁元, 울산) -〈까치야〉(1. 17)	1편
1932년	.	0편
1933년	이원수(李元壽, 양산→마산) -〈비누풍선〉(11. 7) 신고송(申孤松, 언양) -〈잠 자는 방아〉(11. 14)	2편
1934년	남대우(南大祐, 하동) -〈풀국〉(3. 27)	1편
1935년 -1936년	.	0편
1937년	이은상(李殷相, 마산) -〈연 노래〉(1. 17) 장응두(張應斗, 통영) -〈눈물〉(8. 15), 〈잠자리〉(8. 18), 〈호박꽃과 박꽃〉(8. 19)	4편

구분 년도	동시	
	경남·부산지역 관련	소계
1938년	이은숙(李銀淑, 함안) -<산골 영감>(6. 26), <나팔꽃>(7. 24)/어린이 작품 김천만(金千萬, 울산) -<나바꽃>(8. 28)/어린이 작품 신맹덕(申孟德, 하동) -<참새 색기>(11. 20), <허수아비>(12. 4), <콩나물>(12. 18)/어린이 작품 이수선(李壽善, 마산) -<기선>(11. 27)/어린이 작품	7편
1939년	박광지(朴光池, 진주) -<새벽 달>(1. 22)/어린이 작품 이원수(李元壽, 양산→마산) -<부형이>(12. 17)	2편
1940년	이원수(李元壽, 양산→마산) -<야옹이>(1. 14), <염소>(1. 21), <눈 오는 밤>(1. 28), <전깃대>(2. 25), <애기와 바람>(3. 17), <안즌뱅이꽃>(3. 31), <돌다리 노차>(4. 28), <공>(5. 26), <밤 시내>(6. 9), <저녁 노을>(6. 30), <자동차>(7. 28) 신고송(申鼓孤, 연양) -<진달래>(4. 28) 김동기(金東基, 마산) -<살구나무>(5. 12)/어린이 작품 정인섭(鄭寅燮, 울산) -<코끼리 코>(5. 19)	14편
소계	13명	31편

1936년 이후 별면이나 부록으로 발행된 ‘소년조선일보’에는 대체로 작품 발표시에 지역 연고를 알 수 있는 소속이 나와 있으나, 1935년 이후에 ‘우리판’(뒤에 ‘우리차지’로 변경)이란 별도의 난에 발표된 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투고자의 이름만 있고 다른 표지가 없다. 이런 사정으로 경남·부산지역 출신이나 연고를 가진 이들의 작품을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당시 발간된 중요 일간지에 동시를 발표한 이들의 이름과 소속을 교차로 비교하면서 경남·부산지역과의 연고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남·부산지역과 연고가 있는 이의 동시 작품으로 확인되는 것이 모두 13명에 31편이 된다. 이는 10년간 발표된 732편의 동시 가운데 4.23%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1930년 이전까지 경남·부산지역 청년 아동문학인들이 조선일보에 동시나 동화 등을 대거 발표했던 사정과 커다란 격차를 보여준다.

물론 아동문학 외에 시, 시조 등으로 관심 영역을 넓히면 사정이 좀 달라지기는 한다. 성인시 부문에서는 거제생으로 충무에서 자랐던 유치환(柳致環)이 13편, 창원 출신인 김달진(金達鎭)이 12편, 권환(權煥)이 8편, 김해 출신의 김대

봉(金大鳳)이 10편, 마산 출신의 김용호(金容浩)가 7편을 발표하고 있고, 1937년 이후 진주의 정태(鄭泰)와 함안 출신의 조연현(趙演鉉)이 각 4편, 그리고 통영 출신의 김춘수(金春洙)와 거창 출신의 김상훈(金尙勳)이 각각 2편과 1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 출발을 하고 있다.⁴⁵⁾ 그리고 시조 부분에는 강원 영월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김어수(金魚水)⁴⁶⁾가 4편, 마산의 이은상(李殷相)이 3편, 통영의 김상옥(金相沃)과 탁상수(卓相銖)가 각각 2편과 1편, 그리고 부산의 김정환(金廷漢)이 1편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⁴⁷⁾ 이렇게 보면 1931년 이후에 경남·부산지역 관련 문학인들이 상당수 조선일보에 이름을 올렸던 셈이다. 그런데도 아동문학 관련 작품의 발표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아무래도 일제의 언론 탄압이 강화되면서 사회의식을 추구한 문학운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사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계급주의에 기초한 아동문학운동을 전개했던 경남·부산지역의 청년문학인들이 작품 활동을 중지하거나 방향을 선회하여 성인문학에 치중했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931년 이후 조선일보에 발표된 동시가 사회성을 모두 배제한 작품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음 김인원(金仁元)의 동시가 이를 증명한다.

까치야 까치야
 웨그리쫓나
좁쌀밥 한끼도
 없나이집에
먼손님 오시면
 어찌하라고
철업는 까치야
 짓지만마라

-김인원, <까치야> 전문

45) 이외 경남·부산지역 출신으로 신고송(申孤松), 하해룡(河海龍), 염주용(廉周庸), 박대영(朴大永), 박석정(朴石丁), 이은상(李殷相), 장응두(張應斗), 고정옥(高晶玉), 그리고 부산 범어사 불교중학생인 김태운(金泰雲)이 각각 1편의 시를 발표하고 있다.

46) 박태일 엮음, 『가려 뽑은 경남·부산의 시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460쪽 ‘시인 해적이’ 참조.

47) 진주공립중학생인 김홍찬(金洪燦)이 독자 투고로 시조를 1편 발표하고 있다.

김인원은 1930년 말에 조선일보에 3편의 동시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작품을 발표할 때 자신의 소속을 ‘울산’이라고 밝힌 것 외에 다른 이력을 알 수 없다. 작품을 보면 시인으로 성장할 역량이 있어 보이지만, 그의 작품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잠시 얼굴만 내밀었다 수면 아래로 사라진 결과가 되고 말았다. 위의 동시는 까치가 짓으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속설을 이용하되, 손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딱한 사연을 읊고 있다. “좁쌀밥 한끼도/없는이집”의 사정 때문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가난한 현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비판 의식을 일정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송(申孤松)의 동시, ‘독자동요’로 발표된 남대우의 동시, 그리고 경남·부산지역 시인으로 당시 조선일보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이원수(李元壽)의 동시는 그들의 동시관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여기서 남대우의 동시 경향 변화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게재 작품을 통해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고, 신고송의 <잠 자는 방아>와 이원수의 동시 <비누풍선>을 살펴보자.

(一)

더운날점도록 보리를씻코
고닭흔두다리 달빛헤뻗고
방아는고요히 잠을잡니다

(二)

울밋헤반디불 파랑춤추고
뒷논엔맹꽁이 합창하것만
달밤에방아는 잠을잡니다
달밤에방아는 잠을잡니다

-신고송, <잠 자는 방아> 전문

무지개를 불어서
오색구름 불어서
둥그레한 풍선을
만드릿서요
달나라로보낼까

꿈나라로보낼까
고히 고히불어서
날니웁니다

-이원수, <비누풍선> 전문

신고송은 1920년대 말부터 프로아동문학운동을 전개하고, 뒤에 『불별』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신흥예술아동연구회를 주도하기도 했던 이다. 이 때 같은 ‘보리방아’의 시적 소재를 농민 현실의 궁핍상이나 계급적 차이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형상화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잠자는 방아>는 보리를 찧은 후 달밤을 배경으로 한 농촌의 한가로운 정경을 노래하고 있다. 세상살이의 고통이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동시 세계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홍난파(洪蘭坡)의 곡이 붙어 있는 이원수의 <비누풍선>은 비누풍선을 만들어 날리며 노는 아이들이 비눗방울의 오색 빛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멀리 날려 보내는 아이의 순수한 꿈을 표현한 작품이다. 1931년 신고송, 소용수, 이정구, 전봉제, 박을수, 김영수, 윤석중 등과 함께 신흥아동예술연구회를 만들어 활동⁴⁸⁾하던 시절과는 달리 불과 3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작품 세계가 상당히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39년과 1940년에 들어 조선일보 부록인 ‘소년조선일보’에 집중 발표된 이원수의 동시 역시 주로 동심의 순수한 세계를 그려내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동시 세계의 변화 국면을 뚜렷이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아
내 품에 안긴 공아
이불 포옥 덮고
자장 자장 해주께
너두 자거라.

48) 조선일보 1931년 9월 17일자 석간 5면에 게재된 ‘신흥아동예술연구회’의 창립에 관한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원수의 동시를 마산의 소년운동과 관련하여 살핀 원종찬의 다음 글에서는 이런 사실을 밝히지 못했으나, 이원수의 아동문학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원종찬, 『이원수와 마산의 소년운동』,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2, 325-337쪽.

가치 자야 꿈에도
너구 나구 놀-지.
-이원수, <공>에서

저녁놀이 곱-다
비단보다 곱-다

밤-아 오지마
이쁜놀이 죽는다.
-이원수, <저녁놀이> 전문

동시 <공>은 공놀이를 즐기다 잠을 자면서도 이부자리에 공을 가지고 자는 아이의 마음을 잘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치 자야 꿈에도/너구 나구 놀-지”라고 해서 꿈속에서도 공놀이를 하고 싶은 아이의 심정이 잘 드러난다. <저녁놀이>도 곱게 물든 저녁노을을 더 보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 “밤-아 오지마/이쁜놀이 죽는다”라는 구절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930년대 말 이후에 집중 발표된 이원수의 동시 작품들은 주변의 사물들을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포착하여 그려내거나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생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 이전 사회의식을 담은 작품들과는 상당히 다른 동시 작품들인 셈이다. 이원수의 이와 같은 동시 작품들은 1940년 8월 조선일보의 폐간으로 더 이상 이 지면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이후 매일신보 등 다른 지면들을 통해 1945년 광복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친일의 혐의를 받는 일부 동시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점⁴⁹⁾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3. 지역 창작 동화의 급격한 쇠퇴

1931년 이후 조선일보에 발표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동화 작품 발표의 상황도 동시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동화 작품의 발표 상황을 표로 보자.

49) 박태일, 『이원수의 부왜문학 연구』, 『경남·부산지역문학 연구1』, 청동거울, 2004, 172-176쪽.

구분 년도	동화 · 동극	
	경남 · 부산지역 관련	소계
1931년 -1932년	.	0편
1933년	이정호(李定鎬, 의령) -(동화) <귀여운 犠牲>(8. 31), <月桂少年>(9. 30), <울지 않는 중>(10. 25-11. 2) 이주홍(李周洪, 합천) -(동화) <고동이>(9. 10) 김남주(金南柱, 김해) -(동화) <황금왕자>(10. 13-14), <三兄弟>(11. 10), <三동서>(11. 30)	7편
1934년 -1935년	.	0편
1936년	이정호(李定鎬, 의령) -(동화) <까치의 옷>(1. 27)	1편
1937년 -1940년	.	0편
소계	3명	8편

이상의 표에서 보듯이, 1931년 이후 경남 · 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동화 작품 발표가 조선일보에서 이루어진 해는 2년간뿐이다. 그리고 발표된 작품수도 3명에 8편으로 전체 558편 중에 1.43%로 극히 저조한 편이다. 동시가 10년간에 32편이 발표된 사정보다도 크게 뒤진다. 그런데다 이정호의 <월계소년(月桂少年)>과 김남주의 세 작품은 라디오방송용 작품으로 창작 상태를 온전히 보여주는 작품도 아니다. 아울러 이정호의 <귀여운 희생(犠牲)>과 <울지 않는 중>도 창작품이 아닌 번역동화로 보이며, <까치의 옷>도 전래동화에 가깝다. 온전한 창작 동화는 이주홍의 <고동이>뿐이다.

이주홍의 <고동이>는 아동폐지의 ‘우리차지’란에 1회 실린 유아용 동화로 매우 짧은 작품이다. 논고동들이 황새에게 계속 잡아먹히자, 고동들이 꾀를 내어 힘을 합쳐서 황새를 쫓아낸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끝에는 “짧은 고동이 몇 마리가 죽음으로써 희생은 당하였지만은 그 뒤로 고동이들은 걱정 없이 잘 살었다 합니다.”라고 교훈적인 의미를 붙여 놓았다. 황새를 물리친 논고동의 우화를 통해 비록 약자라도 단결을 하면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새기게 했다. 한때 진보적 사회의식을 견지하며 아동문학을 했던 이주홍의 생각이 이 동화에 다른 형태로 잠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1931년 이후 조선일보 지면에 발표된 경남·부산지역 관련 아동문학인의 작품들을 조사하여 검토한 결과, 동시와 동화 부문 모두 영성한 작품 발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감싸서 볼 만한 작품도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더욱이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경남·부산지역 관련 아동문학 작품들은 한 편도 찾을 수 없었다. 경남·부산지역 관련 아동문학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모습을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두고 친일의 황국사관이 점차 강요되는 시기로 나아가는 도정을 고려하여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다행스런 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또한 생각하는 일이다.

IV. 마무리

지금까지 1931년 이후부터 1940년 폐간 때까지 발행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이들 일간지에 게재된 동시, 동화, 동극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면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전개과정과 작품세계의 특징을 고찰했다. 논의한 차례대로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아일보를 통해서 본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에 관해서이다. 1931년 이후 동아일보에서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인의 동시 발표는 전체의 10% 이하에 머물러 기대보다 작품수가 적었다. 그렇지만 동아일보는 하동의 남대우가 아동문학가로 등장하여 가장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한 무대였고, 부산의 김정환, 김해 출신인 김대봉, 통영 거주 이구월과 그곳 출신인 탁상수와 장응두의 동시 작품들이 귀하게 발표된 지면이었다. 그리고 하동의 신맹원이 동아일보를 통해 청년 동시인으로 새로 얼굴을 내밀기도 했다. 또한 이주홍의 일제 강점기 동시로 끝자리에 있는 작품인 <꿩>, 이성홍의 일제 강점기 막바지 동시 작품으로 보이는 <가을달>이 주목되었으며, 합천의 최현주와 의령의 안경원이 신년현상문에 공모 동요 부문에서 각각 1등과 가작으로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도 기록해 둘 필요가 있겠다.

동아일보의 동화와 동극 부문에는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가로 이정호, 이

주홍, 남대우가 각기 개성 있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비록 3명의 작품에 불과했지만, 특히 이주홍과 남대우가 남긴 동화는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전개과정에서도 주목할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주홍의 동화는 풍자와 해학을 동반한 서사적 재미와 함께 교훈성도 갖춘 수준 있는 작품이었고, 남대우의 동화도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 한편 작가의 작품세계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를 통해서 본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에 관해서이다. 경남·부산지역의 젊은 문학청년들은 조선일보가 192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었을 때에는 많은 아동문학 작품들을 발표했으나, 1931년 이후 일제의 언론탄압이 가중되었던 상황과 더불어 조선일보의 사회비판적 기능이 약화되자 조선일보를 대거 떠나게 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아동문학 작품이 주로 발표되었던 조선일보의 학예면이나 가정면에서 경남·부산지역과 연고가 있는 이의 작품을 찾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동시 작품으로는 김인원, 이원수, 신고송, 남대우, 신맹덕, 정인섭, 이은상, 장응두 등의 동시 31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중 이원수의 동시가 1940년에 집중 발표된 11편을 포함하여 모두 13편을 차지했다. 당시 이원수가 조선일보와 소년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활발하게 동시 작품을 발표했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동화 작품으로 이정호, 이주홍, 김남주의 작품 8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8편의 동화 중 방송용 동화로 요약된 것과 번역동화로 보이는 작품을 제외하면 이주홍의 <고동이>만 창작동화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이 작품도 유아용 동화로 길이가 매우 짧은 소략한 내용의 작품이었다. 1931년 이후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이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모습을 조선일보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1930년대 이후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이 전개된 전체적 모습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된 아동문학 작품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는 없다. 1931년 말부터 중외일보에 이어서 발행된 중앙일보와 그 후속 신문인 조선중앙일보, 그리고 친일신문이지만 아동문학에 관련한 작품 발표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매일신보에 게재된 작품들도 마땅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에 관해서 별도의 글을 마련할 것이지만, 앞으로 일간지를 통해 본 아동문학의 논의는

아동문학 전문 잡지나 문예잡지 등에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에 관한 논의와 함께 전체적으로 엮여져야 한국 근대 아동문학에 관한 이해를 한층 온전하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아동문학, 동시, 동화, 동아일보, 조선일보, 지역문학, 경남문학, 부산문학, 남대우, 이원수, 이주홍, 김정한, 김대봉, 이정호, 신맹원, 신고송, 최인욱.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경남일보』 등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에 발행된 일간지 신문의 영인본과 언론사의 해당 신문 PDF 파일, 그리고 마이크로필름(MF).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90.

강희근, 『경남문학의 흐름』, 보고사, 2001. 11.

권영민 편, 『한국근대문인사전』, 아세아문화사, 1990.

김상옥,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 김상옥 아동문학평론집』, 창작과비평사, 2002.

김자연, 『아동문학 이해와 창작의 실제』, 청동거울, 2003. 3.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 민족문화사, 1992.

김정의, 『한국의 소년운동』, 도서출판 해안, 1999.

남대우, 『우리동무(유고집)』, 도서출판 정운, 1992. 7.

박경수,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 — ‘푸로레타리아동요집’ 『불별』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제7집,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3. 9, 201-232쪽.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일간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8, 201-241쪽.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5집, 한국문학회, 2003. 12, 133-161쪽.

박경수,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 삼지원, 1993.

박민수, 『아동문학의 시학』, 춘천교육대학교 출판부, 1998.

박태일 엮음, 『가려 뽑은 경남·부산의 시(1) —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박태일, 『경남·부산지역문학 연구 1』, 청동거울, 2004. 5.

박태일, 「나라잃은 시기 아동잡지를 통해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8, 149-200쪽.

박화목, 『신아동문학론』, 보이스사, 1982. 8.

- 손동인, 「이주홍론 -향파 동화의 빛깔」, 『아동문학평론』 제26호, 1983.
-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 이상현, 『한국아동문학론』, 동화출판공사, 1976.
- 이순옥, 「습작기 요산 김정환의 시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5, 33-67쪽.
- 이오덕, 「어린이들에게 주는 유연과 같은 노래들」,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12호, 1994. 3, 155-176쪽.
-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개정판, 서문당, 1983.
- 이재철 편, 『한국아동문학 작가작품론(전편)』, 서문당, 1991.
- 이재철 편, 『한국현대아동문학작가작품론』, 집문당, 1997.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1990.
- 최 준, 『한국신문사논고』, 일조각, 중판, 1995.
- 최지훈, 『한국 현대아동문학론』, 아동문예, 1991. 5.
- 한정호,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 『경남어문논집』 제7·8합집,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1995, 231-267쪽.
- 한정호, 「김대봉의 동시관과 동시 세계」, 『지역문학연구』 제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 11-26쪽.

<Abstract>

A Study on the Juvenile Literature of
Kyungnam and Busan through the Daily
Presses during the Colonial Period(2)

- centering around works published in Donga-ilbo,
Chosun-ilbo(1931~1940)

Park, Kyung-Su

This study aims to make a list of juvenile literature in Kyungnam and Busan region through the daily presses, and to grasp its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1910~1945). For this, I have secondly surveyed and researched nursery rhymes, stories, and dramas which were published in Donga-ilbo, Chosun-ilbo(1931~1940). The results so far achieved are in substance as follows.

1. I could find out 61 pieces of nursery rhymes and 18 pieces of nursery stories(including dramas) as a work of juvenile literary man from Kyungnam or Busan in Donga-ilbo(1931~1940).

2. Those nursery rhymes contain 22 pieces of Dae-Woo Nam(from Hadong)'s, 5 pieces of Dae-Bong Kim(from Kimhae)'s and Maeng-Won Shin(from Hadong)'s by each. Judging from these facts, we can know well that three above writers were actively engaged as a juvenile literary writer in Donga-ilbo. In addition to this, we can check that many writers of Kyungnam and Busan published their nursery rhymes in Donga-ilbo, such as Jeong-Han Kim(from Busan), Ju-Hong Lee(from Habcheon), Gu-Wol Lee(lived in Tongyoung), Eung-Du Jang(from Tongyoung), and the others.

3. Among 18 pieces of nursery stories, there were 11 pieces of Jeong-Ho

Lee(from Euiryung)'s, 4 pieces of Ju-Hong Lee's, and Dae-Woo Nam's. Especially Ju-Hong Lee's stories give us rich narrative interests and instructions with a sence of humor and satire, and Dae-Woo Nam's ones have the structure of sentence.

4. In Chosun-ilbo(1931-1940), I could find out 31 pieces of nursery rhymes and 8 pieces of nursery stories as a work of juvenile literary man from Kyungnam or Busan.

5. Won-Su Lee was the best active poet among juvenile literary writers of Kyungnam and Busan in Chosun-ilbo at that times by announcing 13 pieces of nursery rhymes. Most of his rhymes are works discovered newly. Except him, Eung-Du Jang and Maeng-Deok Shin(from Hadong) published 3 works, and Go-Song Shin(from Eunyang) inserted 2 works in this newspaper.

6. Among 8 pieces of nursery stories, only a tale of Ju-Hong Lee, that is, <a spiral shellfish in a rice field>(Godongi) is worth reading. Except this, Nam-Ju Kim(from Kimhae)'s nursery stories were abridged editions for radio broadcasting, and most of Jeong-Ho Lee's were tales in translation. I could apprehend that juvenile literature in Kyungnam and Busan region was on the decline in Chosun-ilbo.

Key Words : juvenile literature, nursery rhyme, nursery story, Donga-ilbo, Chosun-ilbo, regional literature, literature of Kyungnam region, literature of Busan region, Dae-Woo Nam, Won-Su Lee, Ju-Hong Lee, Jeong-Han Kim, Dae-Bong Kim, Jeong-Ho Lee, Maeng-Won Shin, Go-Song Shin, In-Uk Choi.